

준비된 자기 기회를 얻고 노력하는 자 시간을 번다

나의 삶 나의 불교학

이평래 교수

등락이 없어 대학원에 진학 못하고 학원강사를 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영어·일어만은 놓지 않았다. 학부시절 미국 유학이 가고 싶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김동화 박사 연구실의 빠른 영어책을 보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국대가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에 보낼 유학생을 구할 때, 일어를 잘했던 나는 일본 유학을 가게 됐다. 37세에 떠난 유학생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시골 초등교사였던 나를 불교학자로 키운 것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어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평래는 없었다.

1940년 전북 임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전주사범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전주복중 동기들은 전주고를 거쳐 서울 명문대로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나만 전주고가 아닌 사범학교로 갔다. <철학개론> 수업을 들던 중 실존철학을 배웠다. 전후 1950년대는 실존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선생님은 이미 불교에서 다뤄진 것이라 했다. 참선 1주일만 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 했다. 어린 시절 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시작됐다.

초등교사 시절이다. 서울 명문대로 진학한 친구들이 내게 상경을 권유했다. 서울에 올라오면 과외하며 돈 벌이 대학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학공부가 하고 싶어 20대 초반에 교사직을 버리고 상경했다. 입주과외 덕에 하숙비, 학비, 용돈 모두 해결됐다. 막연히 동경했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

'불안'에 대한 의문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학부를 마치고는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직장생활을 8년여 했을 때다.

1976년 내 나이 37세. 집사람과 아들, 딸을 데리고 유학길에 올랐다. 집사람은 직장생활 하며 가장이 돼 애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렸다. 나는 온 종계도 네 개의 장학금을 받았다. 교환학생으로 받는 것 외에 전주사범학교를 나온 일본인 선배들이 장학금을 줬다. 제일조선인들이 출연한 조선장학금

을 받았고, 로터리 클럽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았다.

덕분에 나는 공부에 매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남보다 늦게 유학길에 오른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다. 오직 제대로 불교학을 배우겠다는 일념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하지만 나이 든 내가 젊은 친구들보다 시간을 길게 쓰는 방법은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나를 두고 당시 친구들은 "이평래를 찾으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도 했다. "유학생 중 이평래가 가장 먼저 학위 받을 것이다"는 말도 있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을 때문이었을까?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던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충남대에서 교수채용 제의를 해왔다. 나는 학위

를 받지 않았다. 인도 뿌나대에 유학해 스승 크리티아에 유창했던 은사는 '보성론' 중심의 여래장사상'을 전공했지만, 나는 '대승기신론' 중심의 여래장사상'을 전공했다. 여래장을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목록을 일일이 검색했다. 그렇게 찾은 자료를 복사해 '여래장 관련 논문 컬렉션'을 만들었다. 모아진 논문 편수만 700여편이다. 다 카사키 교수가 여래장사상 관련 자료는 당신보다 내게 더 많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인도학불교학회에 발표할 원고를 들고 찾아간 내게 은사는 글씨 하나하나를 수정해 줬다. 하지만 내용은 손대지 않았다. 외국인으로서 문법이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당시 사상을 내게 발표시키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간혹 틀린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게 하는 것이 내 은사의 교육 법이었다.

내게는 은사가 한번 더 있다. 당시 도쿄대 교수신분으로 고마자와대에 출강하던 다카사키 교수는 규정상 지도교수로 모실 수 없었다. 그래서 미즈노 코겐(水野弘元) 교수가 지도교수다. 불교는 종교성과 철학성이 공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분이 미즈노 코겐 교수였다. 미즈노 교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참선을 했고, 6시부터는 1시간동안 공원을 걸었다. 104살에 작고하신 그 분은 100살까 지 눈문을 집필했다. 이분의 삶은 종교성과 철학성이 공존한 참된 불교학 자체였다. 문

“‘철학개론’ 수업중 불교 관심 시작 불교학을 제대로 배우겠다는 일념”

를 마치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은사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교수는 흔치않은 기회라며 귀국 후 논문을 쓰라고 권유했다.

1982년 충남대 교수임용까지 6년 유학생 생활을 했다. 일본에 와서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어학기초가 탄탄히 다져져 있었다. 초기불교 연구자들은 뽀리어를, 대승불교 연구자들은 산스크리트어를 했고, 선학 연구자들은 한문경전에 숙달돼 있었다. 모두 소설처럼 경전을 읽을 수 있었다. 동국대에서 영어·일어만 했던 나는 그들처럼 할 수 없었다. 다행히 한문경전 해석만은



이평래 교수는 1940년 전북 임실 출생. 충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대승기신론연구>와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를 주제로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유학했다. 2008년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이다. 한국불교학회를 사단법인화 해 학회 운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학자적 양심에서 공부하겠다는 제자들을 동국대나 유학 가라고 권유한 탓에 박사 제자가 없다. 인도 델리대에서 공부한 아들 이용주 박사(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대를 이어 불교학을 연구한다. 정선과 의학박사인 며느리와 심리학을 전공한 딸과 함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일기를 이뤘다.

화는 모방이라 했던가? 내 생활은 수행과 학문이 둘이 아니었던 미즈노 교수의 영향 이 크다.

200가지 이상의 요가동작을 하는 나는 불교 핵심에 요가가 있다고 본다. 참선은 요가의 부분이다. 1989년 인도 네루대에 가서 요가 전적을 읽었다. 요가는 과학이었다. 합리적·도덕적·종교적이었다.

아침이면 나는 절을 한다. 전신운동이면서 호흡과 마음을 통일하는 절은 단순 예배가 아닌 선이다. 일어설 때 숨을 들이 쉽다.

없드리면서는 "음~"하면서 숨이 다할 때까지 몸속의 공기를 다 내보낸다. 출장가도 할 정도로 일상이 된지 오래다. (숨을) 내보낸 만큼 (신선한 공기) 채워진다.

요즘 나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 세계사상사와 문화사종교사 등도 두루 살핀다. 세계사를 겸해야 인류 문화의 큰 틀에서 불교를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불교가 연구된다. 다양한 학문과 언어로 보고 듣고 표현하는 자체가 불교를 세계화시킨다. 세계속 불교는 바로 불교의 세계화를 뜻한다. 이것이 불국도 아닌가?

나는 불교학을 순교학이라 부른다. 하지만 배출된 불교학 박사가 국내에서 300명, 해외출신 200명이다. 이들은 전공을 활용해 생활할 기반이 없다. 나도 43세에 교수임용되기까지 백수였다. 순교정신을 갖고 인내하지 않으면 불교학을 할 수 없다. 출가·재가 힘을 합쳐 배출된 학자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인프라를 갖추는 것 또한 인재불사다. 불교학이 더 이상 순교학이 아닌 그날을 나는 꿈꾼다.

정리·사진=조동섭 기자

대한한약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71004-중-17808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며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中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中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뢰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성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총무소 ☎ 063)544-0416
www.sungmoam.net